


5/12 일요일 날씨 

-한재현- 아침에 일어나 떡갈비를  
먹고 난후 머리를 감고 친구들과 만나  
2시 쯤에 피시방에 가서 게임

(League of Legend) 하였었다. 역시  
이 게임은 헤어 나올수 없는 악마의  
게임이다. 2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

난후에 애들 이랑 노래방에 가서  
노래를 3시간 동안이나 불러서

목이 너무너무너무 까지는 아니고  
조금 아팠다. 7시 정도에 집

에 도착 하였다. 할머니, 엄마, 아버지

와 함께 몸보신을 하러 우이동

에 있는 장어 집에 가서 장어

를 맛있게 먹었다. -일기끝-